사람은 자신이 보고 자란 풍경을 세상의 기준이라고 믿으며 자란다. 나 역시 그랬다. 우리 집에서는 엄마가 먼저 움직이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식사가 끝나면 아빠는 자리에 앉아 계셨고, 엄마는 자연스럽게 물을 가져다드렸다. 설거지와 집안일도 대부분 엄마의 몫이었다. 나는 그 모습이 많은 가정의 당연한 풍경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결혼 후 처음 시댁에서 본 풍경은 내가 알던 '당연함'과 너무 달랐다.

내가 전어회를 좋아한다고 하자 아버님은 직접 주방으로 들어가 회칼을 드셨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전어를 손질해 회를 떠 주시는 모습이 아직도 선명하다. 식사가 끝난 뒤에도 한 사람에게 일이 몰리지 않았다. 설거지와 상 차리기, 뒷정리까지 필요한 사람이 먼저 움직였고, 모두가 함께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러웠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낯섦은 부러움으로 바뀌었다.

'가족은 원래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런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바로 내 남편이다.

남편은 집안일이나 육아를 '도와준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는 것은 누군가를 돕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먼저 부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힘들어 보이면 말보다 행동이 앞선다. 아이를 안고 달래고, 기저귀를 갈고, 재우는 일도 늘 둘의 몫이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누가 더 많이 했는지를 따질 일이 거의 없다. 함께 책임지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결혼 후 어머님께 들은 말도 오래 잊히지 않는다.

"내가 아들 결혼하기 전에 미리 말해놨어. 나중에 내가 치매가 와서 말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정신 멀쩡할 때 해 두는 말인데, 나랑 며느리랑 싸우면 너는 무조건 아내 편을 들어라."

웃으며 하신 말씀이었지만, 나는 그 안에 담긴 마음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다. 며느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부부가 서로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시누이도 늘 나를 존중해 준다. 시댁에 가면 나도 모르게 일어나 일을 거들려고 할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언니는 앉아 있어요."하며 먼저 쉬라고 말한다. 조카들을 보러 우리 집에 놀러 오고 싶어도 내가 불편하지 않을지 남편한테 먼저 물어보고, 내 상황을 배려해 준다. 가까운 가족일수록 더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시누이를 보며 자연스럽게 배웠다.

결혼 전에는 양성평등이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방대하고 무거운 주제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양성평등은 구호에만 그치는 외침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행동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아버님이 기꺼이 주방으로 향하는 모습, 남편이 육아와 집안일을 자신의 책임으로 여기는 모습, 어머님의 따뜻한 당부, 시누이의 배려. 이 모든 것이 모여 우리 가족의 '당연함'이 되었다.

이제 우리 아이들도 그런 모습을 보며 자라고 있다. 아빠가 집안일을 하고 아이를 돌보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고 배우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익혀 갈 것이다.

예전에는 내가 보고 자란 모습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혼 후 새로운 가족을 만나며 '당연함'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이제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당연함을 물려주고 싶다. 양성평등은 거창한 제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식탁에서 먼저 일어나는 사람, 서로를 존중하는 말 한마디, 그리고 가족을

대하는 작은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 가족은 매일의 일상으로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가족의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도 새로운 ‘당연함’을 만드는 작은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